

貫冊과 稅書 : 전통시기 한국과 중국의 소설 대여와 독자

강 중 임*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
| II. 전통시기 한국의 소설 | 대여와 소설독자 |
| 대여와 소설독자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줄곧 비공식적인 역사이자 전통적 관례에 대한 부정이며, 인간의 자유분방한 상상을 관대하게 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소설에 대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동서양의 개념의 차이나 모호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소설의 견고한 특징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 소설은 재미있다. 그러나 그러한 재미를 마음껏 누리기에는 전통시기의 한국과 중국의 사회가 그다지 관대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사회 질서의 유지에 어떠한 서적보다 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충동질 하는 소설 나부랭이가 반가울 리도, 존중 받을 리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음란함이나 도적질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소설은 줄곧 창작 예술로서의 몇몇한 지위를 얻지 못한 채 금기시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금지된 대상은 치명적인 유혹으로 남아 주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 동국대학교(경주)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자극하고 위반의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욕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¹⁾ 그래서 금지되어지고 훼방되어진 소설은 그 주체, 즉 독자들의 갈망을 더욱 부추기고, 이는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당시의 사회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책읽기가 사회적 규율을 체험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사회적 규율을 뚫고 등장하는 내밀한 쾌감으로서 감지된다.²⁾는 점에서 보면 독자들의 책읽기는 그 사회의 단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전통시기 한국과 중국의 독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는 독자들의 책읽기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사회의 단면을 고찰하기 위해서 전통시기 한·중 양국의 도서대여 형식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 후기의 貫冊과 중국 명·청대의 稅書 비교를 통해 소설의 유통경로와 그 독자층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세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책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세책은 18, 19세기에 걸쳐 유럽, 일본이나 조선의 서울에서도 번성하였던 도서대여 영업의 형태로서 국가 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책을 빌려보는 독자들의 생리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범위는 문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이 아니라 서민 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책은 조선 후기 문화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자료이다. 조선시대 세책 연구는 중국의 소설대여 유통에 관한 연구³⁾에 비해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며, 현대에 다시 주목을 받는 분야⁴⁾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김용수, 《자크라캉》, 파주: 살림, 2008, 23쪽.

2) 윤대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회색인》, 《서유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16집, 2007, 173쪽.

3) 大谷森繁은 청말 이전의 중국의 세책 자료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중국에서의 소설 유통에 세책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大谷森繁, <조선 후기의 세책 재론>, 《세책고소설연구》, 서울: 혜안, 2003, 35쪽.)

한편 필자가 중국 전통 시기의 소설 대여에 관해 정리한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와 한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통시기 중국에도 稅書鋪라는 명칭의 도서 대여점이 있었고, 전문적으로 도서를 운반하거나 빌려주는 선박인 書船이 존재하였으며, 잡화와 함께 도서를 들고 다니며 대여해 주는 貨郎이라 불리던 상인들도 있었음을 알았다. 이들 도서대여 유통의 다양한 존재들은 바로 조선의 세책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대여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전통시기 중국의 도서 대여가 관심을 끌만큼 중시되었던 사회문화적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세책이 ‘서울 지역의 부녀자들’이라는 제한된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데 비해, 중국의 세서는 그다지 영향력 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통시기 양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전통시기 한국과 중국의 소설 대여 현상에 대한 비교와 고찰은 독자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전통시기 양국의 소설을 대여하던 독자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어느 시기에든 문화의 중심이자 첨단이었던 문학을 이끌어가는 대중의 성질에 대한 규명이며, 전통시기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4) 예컨대 2006년에 제작된 상영된 <음란서생>이나 2014년에 방영된 TV드라마 <비밀의 문>에는 조선시대 세책방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게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관부에 들이지 않기 위해 비밀스럽게 운영되던 세책집의 모습이나, 금지된 서책(주로 소설이지만)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은 아주 인상적이다. 세책집이 지니고 있는 비밀스러움과 금지된 것이라는 설정은 사람들의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단히 유용한 장치로 작용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II. 전통시기 한국의 소설대여와 소설독자

영화 <음란서생>이나 TV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는 어두컴컴하고 비좁은 밀실과 그 안에 뻑뻑이 들어서 있는 서가들, 그리고 구석에서 열심히 서책을 베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이 바로 전통시기 한국에서 소설이 필사되고 유통되던 중요한 장소인 세책점의 모습이다. 그 어둡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세책이라는 형태의 유통방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긍정적으로 공인되던 것은 아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심지어 <비밀의 문>에서는 세책에 대한 옹호는 전통과 권위에 대해 도전적이면서도 심지어 반역적이기까지 한 기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며, <음란서생>에서의 왕의 총애를 받는 구중궁궐 속 정빈의 비밀스러운 세책가 나들이는 금지된 것에 대한 아찔한 반란을 상상하게 한다. 이들 모두 세책이라는 하나의 문화현상을 매우 적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통시기 한국의 소설은 대부분 필사본으로 유통되면서 필사 과정에서 개작되었다. 단권짜리는 傳奇叟가 낭독하고, 장편은 貰冊家에서 빌려주어 상품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필사에 의한 비영리적인 유통의 영역이 더 넓었다. 소설을 빌려보는 사람은 베낄 수 있고, 베끼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작할 수 있어 광범위한 독자가 개작에 참여했다. 그래서 수많은 이본이 생기기도 했으며, 이것이 한국소설을 독자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⁵⁾ 이러한 특징은 조선에서의 소설 유통이 출판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한글을 주로 사용하던 여성들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정병설은 세책의 등장시기와 유행에 대한 고찰을 통해 1710년 무렵에 세책집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1720년대에 이미 세책집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그 시기에 벌써 소설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었고, 1740년대에는 세책 소설의 성행을 볼 수 있었다고 유추하였다.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서울: 지식산업사, 2005, 92~93쪽 참조.

이는 곧 18세기 중후반에는 세책을 통한 소설 향유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세책집은 번역, 번안, 창작물의 사본을 만들어 내는 출판업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 그것을 독자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이익을 취하였고 때로는 수요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책을 판매하는 서점의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⁶⁾ 즉 세책은 종전의 개인적인 필사로부터 하나의 상업적인 대량 생산의 형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문예 진흥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책의 점진적인 확대는 그 수용자들의 확산과 더불어 독서 의욕을 한층 더 고취시켰음은 물론, 세책집을 통한 舊作의 대량 필사와 아울러 독자층의 다양화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작품도 많이 창작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⁷⁾

가난한 선비가 소설책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貰 놓는 한편 타인의 저작물까지도 필사하여서 같이 貰를 놓아서 그것으로 호구책을 삼았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사회제도에 있어서 소위 양반이 아니고는 仕宦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디 취직을 하여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 당시 庶流계급 인물로서 유식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직업이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⁸⁾

이들 사본필사는 물론 창작도 남북촌의 빈한한 양반의 후예나 胥吏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여기에 이러한 창작이나 서사에 대한 보수가 나가고 다시 세책을 놓는 집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⁹⁾

-
- 6)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100집, 2005, 270~274쪽 참조.
 7) 大谷森繁, 앞의 논문, 25쪽.
 8) 조윤제, 《한국문학사》, 서울: 탐구당, 1981, 307쪽.
 9) 김동욱,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과 서지>,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235쪽.

이러한 기록들은 세책의 제작자가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필사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가난한 선비나 서리들의 호구지책이었으며, 그것으로 세책의 흥행을 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입신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회의 구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세책집에서 취급하였던 도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모리스 꾸랑의 다음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서적은 결코 상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책가도 상당히 있어 그 곳에는 특히 대중의 서적, 즉 印本 또는 寫本의 대개는 한글로 쓰인 이야기책, 노래책이 구비되어 있는 바 이 집 책은 서점의 매품보다도 정성스럽게 되어 있어 종이도 상질로서 인쇄되어 있는 일이 많다.¹⁰⁾

또한 岡倉由三郎의 언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에는 세책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貸本屋’과 비슷한 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대개 언문으로 쓰인 이야기책이 있다. 단지 조선인이 창작한 작품뿐만 아니라 <서유기>, <수호전>, <서상기> 등 중국의 소설을 언문으로 번역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책을 빌리려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물건(냄비, 술 등도 가하다)을 세책가에 가져가서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빌려온다. 그 책을 빌리는 요금은 한 권당 이삼일의 기한으로 2,3厘 정도이다. 세책가에서 빌려주는 책은 시정에서 파는 것처럼 조악하지 않고 폭이 넓고 세로로 긴 종이에 선명하게 붓으로 찍워 있으며, 열독하기도 대단히 편하다. 이 기회에 말하면 책사도 세책가도 이 경성에만 있을 뿐이며, 그 이외에는 가령 평양, 송도와 같은 도시에도 세책가가 전혀 없다고 한다.¹¹⁾

10) 모리스 꾸랑, 김수경 역, 《조선문화사서설》, 서울: 범우사, 1995, 15~16쪽 참조.

11) 岡倉由三郎, <朝鮮의 文學>, 《朝鮮의 文學》 74호, 845쪽 (大谷森繁, 앞의 논문 29쪽에서 재인용).

세책가에 구비된 책들은 대부분 언문으로 된 소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은 세책을 애용하던 독자층이 언문을 주로 사용하였던 계층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어떤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도 세책은 없었으며 오로지 서울(경성)에서만 세책이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국을 돌아다니는 세책 행상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는 세책이 당시에 있어 서울의 일부 독자층 사이에서만 유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¹²⁾이라고 하였다.

세책집이 생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도시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소설을 찾는 요구가 있었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소설을 빌려주고 이윤을 얻겠다는 장사가 생겨난 것에 있다. 세책집에서 다루는 소설이 순전히 한글로 된 것으로 보아, 한문으로 된 고급의 소설을 읽는 독자층은 세책집의 고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세책집의 주 고객은 한문으로 된 소설을 읽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계층이 아닌, 서민층이나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기 한국의 경우는 독자로서의 여성들이 주목받음에 따라 그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세책’이라는 도서대여 유통이 부각되었고, 그것이 마치 도서 유통을 대변하는 하나의 독특한 사회현상처럼 여겨졌다. 이는 전통시기 한국의 소설이 독자 중심의 장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양국의 소설 독자의 성향이나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조선시기의 소설은 독자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여성 독자의 독서 양상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독자 중심의 중국소설에선 작자의 창작과 출판 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논의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양국 소설의 주요 독자

12) 大谷森繁, 앞의 논문, 25쪽.

층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와 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시기 한국의 소설 독자, 특히 한글소설의 독자로서 여성들이 차지한 역할이 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大谷森繁은 그 이유를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상이한 여성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까닭이라고 보았다.¹³⁾ 한글과 한문이 공존하던 조선시대의 언어문화는 여성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한글은 여성들의 문자로 남성들의 문자였던 한문과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였다. 여성들이 주로 향유하던 글은 계녀서(戒女書) 류의 여성 교육서, 편지글, 가사, 소설 등이었으며, 이밖에 요리책이나 백과사전류 등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시대 여성들의 독서물 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고소설이다. 고소설은 다수의 당대 여성들이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탐독했던 문학 장르였고, 서민층 여성에서부터 궁중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향유 계층 역시 광범위하였다. 물론 그 가운데 고소설을 창작하거나 중국소설을 번역하였던 역할은 한자를 알고 있었던 지식인 남성이 주로 담당했겠지만, 소설 읽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집안 여자들을 위해 번역을 자처하거나 창작을 했다는 기록¹⁴⁾을 통해서 보면 조선시대 고소설의 발전에 여성 독자들의 공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 여성들에게 있어서 소설은 읽는 즐거움, 재미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장 금기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유, 서점의 서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이

13) 大谷森繁, <十五·十六世紀 小說讀者>,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375~376쪽 참조.

14) 박소현은 어머니를 위해 창작했다는 김만중의 《구운몽》이나 만년에 누워서 소설 듣기를 소일거리로 삼으셨던 어머니를 위해 신기한 이야기책을 빌리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창작까지 했다는 趙聖期가 《彰善感義錄》을 지었을 것이라는 설,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여자들을 위하여 《경화연》을 번역하였다는 사실 등을 예로 들어 유교문화의 토대인 효성과 가문 의식에 의해 소설 읽기의 관습이 이어졌음을 밝혔다.(박소현, <소설 중독: 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 독자>, 《중국문학》 제53집, 2007, 125~138쪽 참조)

유도 바로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구운몽》 뿐 아니라, ‘~~록 계열’에 속하는 수많은 기문 소설들은 여성들이 읽을 만한 교양도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독서 과정에서 여성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던 부분은 유교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는 대목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작품의 서술 자체가 남성 인물들의 잘생긴 외모 묘사나 수작을 거는 장면, 또는 남녀 풍정을 그릴 때 훨씬 자세하고 생동감 있는 것을 보면, 독자들의 취향도 당연히 그 쪽에 치우쳤을 것임을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들에 대한 탐독이 규방 여성들에게는 대리만족의 서사로 기능했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소설의 기능이 여성들의 암묵적인 문화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¹⁵⁾

은밀하고 금기된 것에 대한 흥미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것처럼 재미있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당시 한국의 출판, 인쇄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구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독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소설 대여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어쩌면 이러한 구조가 ‘세책’이라는 도서 유통 방식을 두드러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즉 전통시기 한국의 소설 유통 및 독서 현상 연구에서 세책 현상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책’이야말로 상업적 인쇄와 출판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소설이 대중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전통시기 한국의 세책의 소비에 있어서 그 주된 계층에 대해 논의를 돌려보자.

이제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士類의 여성들을 포함한 서울에 거주하는 부유한 유한 여성들을 세책본 소설의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귀납된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책을 빌려 본 사람들의 계층

15)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자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제8집, 2005, 39~49쪽 참조.

은 단지 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폭넓은 계층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연구에서는 최상위 계층에서부터 관료계층, 일반 민서 계층, 무관계층, 상인계층, 여성계층, 하위계층에까지 그 독자층을 이루고 있다(정명기)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연구에서는 관료층, 상인층, 군인층, 천민층, 여성층 등 다양한 계층의 독자가 있었다(전상욱)고 하였다.¹⁶⁾ 특히 전상욱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여성 대출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것이 대출장부의 이름과 직업을 분석해서 끌어낸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상과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여성이 책을 대출해 가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편이나 부친 등 남성의 이름을 대출자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고, 남편이 부인을 대신해서 책을 대출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세책의 주요 고객들이 이처럼 다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세책이나 세책집에 대한 논의는 곧장 독자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된다. 먼저 세책의 주요 고객은 서민이나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로 형성되었고, 주로 한글로 된 소설을 빌려 보았으며, 또한 다른 어느 지역도 아닌 오로지 서울에서만 유행했던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Ⅲ.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대여와 소설독자

중국의 도서대여에 관한 논의는 필자의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와

16) 이에 관한 자료로는 정명기의 <세책본 소설의 유통 양상>(《고소설연구》 제16집, 2003)과 전상욱의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소설연구》 제26집, 2008) 등이 읽어볼 만하다.

17) 전상욱, 앞의 논문, 251쪽.

그 한계>라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전통시기 중국의 도서대여가 한국이나 일본 등 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활성화되지 않았고, 도서 유통에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하층 서민을 대상으로 영세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견해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물론 한국의 중국문학계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제이고, 중국 측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전통시기 중국에서의 소설 대여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 전통시기의 소설 대여는 크게 개인적인 도서 대여인 轉借, 전문적인 대여점에서 이루어지는 租賃이라는 형식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稅書鋪라는 명칭의 소설 대여점, 전문적으로 도서를 운반하며 팔거나 빌려주는 선박인 書船, 貨郎이라 불리던 책 보부상들도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¹⁸⁾ 이 논의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중국에서 대여 형식의 소설 유통이 결코 전통시기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전도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중국의 도서 대여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시기 중국의 도서대여 상황에 대해선 이제껏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합당한 인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문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아마도 전통시기 중국 사회에서 대여보다는 출판이나 판매와 같은 유통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도 그것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그 실상과 달리 중국의 소설 대여가 부각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필자는 우선 출판과 인쇄의 활성화로 인한 상업적 출판 시장의

18) 강종임,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와 그 한계>, 《중국어문학》 제66집, 132~133쪽 참조. 이 논문에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 양상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고찰하였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고 결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눈부신 발전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책에 대한 가치와 장서 문화에 대한 관념, 그리고 소설을 대여하는데 필요한 선행적 절차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대여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성과는 한국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 상황에 대해 환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의의를 지닐 수는 있지만 보다 더 전면적인 소설 대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자에 대한 보다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소설의 독자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중국과 한국의 고전소설 독자층에 대하여 조동일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중국의 경우 고전에 대한 지식을 가진 紳士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한국의 경우 한글 덕분에 여성이 압도적인 비중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였다.¹⁹⁾ 명대 呂天成的 장편소설 《繡榻野史》의 서문에 보이는 다음의 인용문은 중국 독자와 관련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몇모르는 어린 하인이 우연히 《繡榻野史》를 사서 바쳤다. 처음에는 옛날에 비녀 꽂고 귀걸이 단 부녀자들이 궁중 內院에서 읽던 교화에 작은 도읍이나마 되는 책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내버려 둔 상태였는데, 이듬해에 가끔 서점에 들렀다가 벼슬아치들과 학문하는 선비, 소년들이 종종 (그것을) 물어보는 것을 목격했다.²⁰⁾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점에서 관심을 가진 소설 작품에 대해 문의하는 벼슬아치들과 학문하는 선비, 그리고 소년들이야말로 직접 소설작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인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인이나 집안 남자들의 손을 빌려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규방의 여인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당시 사회에서 소설책

19)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서울: 지식산업사, 2001, 127~180쪽 참조.

20) 黃霖, 韓同文 選注, 《中國歷代小說論著選》[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204쪽.

은 그야말로 경제적 여유를 갖춘 유한 계층, 즉 관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 인이나 부유한 상인 및 그들의 처첩이나 감상할 수 있는 호사스러운 취미 생활의 대상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²¹⁾ 그러나 소설의 독자층을 여성이나 지식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더불어 황제를 정점으로 하여 매우 다양한 서민계층, 심지어 문자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지만 눈과 귀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설을 접하는 하층사회 사람들까지 그 독자층은 점차 확대된다. 예컨대 梁啓超는 《清議報》 第1期에 발표한 <譯印政治小說序>에서 康有爲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글자를 아는 사람 가운데 경전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六經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소설이 가르칠 수 있다. 正史에는 넣을 수 없는 것도 소설에는 넣을 수 있다. 어록은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해도 소설은 깨우칠 수 있다. 법률은 다스리지 못해도 소설은 다스릴 수 있다. …… 따라서 글을 짓거나 학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손에 들고 읽었으며, 이래로 병사들이나 시정잡배, 농민, 장인, 마부, 아녀자 할 것 없이 손에 들고 읽지 않는 자가 없었다.²²⁾

명대 이후 소설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이 글이 쓰인 19세기 후반에 오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소설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제고되었고, 독자층 역시 매우 광범위하였다는 사실은 당연히 그 이전부터 서서히 소설 독자가 형성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통 시기 중국의 소설 독자층은 어쩌면 같은 시기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대중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두터운 독자층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21) 홍상훈, <전통시기 강남지역에서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소설작품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41집, 2004, 139쪽.

22) 梁啓超, 《飲冰室文集》[上] <教育>, 上海廣智書局本, 서울: 書景文化社, 1992, 55쪽.

이유는 출판과 인쇄 문화의 발전이다. 소설의 인쇄와 출판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적 독서문화를 만들었던 한국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더욱 구별된다. 출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과 중국 출판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상업 출판의 성행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출판의 성행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상업출판의 성행은 광범위한 서적의 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書種이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²³⁾ 즉 중국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그들의 흥미에 맞는 독서가 가능했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판, 인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독자층의 또 다른 양상은 여성 독자층에서도 나타난다. 葉盛(1420~1474)의 《水東日記》 권21 <小說戲文>에 기재된 “어리석은 남자와 여인네들은 특히 좋아하여 호사가들은 (소설을) 《여통감》으로 간주한다.(癡騷女婦, 尤所酷好, 好事者因目爲《女通鑑》)”²⁴⁾ 라는 구절은 집단으로서의 여성 독자층의 존재를 확인시킨다.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實名으로 자신이 소설 독자임을 밝힌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며, 낮은 수준의 독서능력을 가진 여성 독자들은 묵독이 아닌 공동 독서 혹은 음독의 방식으로 통속소설을 접했을 것이다.²⁵⁾ 이렇게 보면 전통시기 중국 여성들의 독서 행위가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독서 양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중국 여성 독자들의 특징을 논의할 때 17세기 강남 지방 여성들의 문화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매우 예외적인 존재이고, 비록 매우 협소한 범위의 것이긴 하지만 조선의

23) 섭덕휘 지음, 박철상 옮김, 《書林淸話》, 서울: 푸른역사, 2011, 7쪽.

24) [明]葉盛, 《水東日記》,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528919&remap=gb>.

25) 최수경, <清 후기 여성들의 소설 수용에 관한 연구—題紅詩에서 《紅樓夢影》까지>, 《中國小說論叢》 35집, 2011, 305~307쪽 참조. 최수경은 또한 이러한 여성 독자의 존재가 19세기 초반부터 《紅樓夢》·《鏡花緣》 등의 출간으로 규방의 여성 독자들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드러났으며, 여성이 유력한 독자 집단으로 의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양반층 여성과는 달리 여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출판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대중에 알렸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 양반층 여성들의 문화는 17세기 강남 신사층 여성들처럼 출판·인쇄라는 문화의 결실을 맺어 광범위하게 구성된 대중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²⁶⁾ 그렇다면 전통시기 한국과 중국의 극소수의 여성 작가를 포함한 여성 독자층의 양상을 대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출판·인쇄의 보편화·활성화 여부에 달린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책과 세서의 독자층을 비교하거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 독자층에 대한 인식이나 그 문화를 비교해보면, 전통시기 한국과 중국의 사정이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세책은 왜 그토록 주목받는 문화현상이 될 수 있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중국의 세서는 특별히 관심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명대 이후 출판 인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특히 南京, 蘇州, 杭州, 寧波 등 강남지역에서 활발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청대 중기 四川 지역에 자리 잡은 도서 발행 점포인 善成堂의 경우만 봐도 출판 인쇄의 발전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선성당은 본점을 重慶에 두었지만, 계속해서 成都, 南昌, 沙市, 漢口, 東昌, 齊南, 泊鎮, 北京 등지에 분점을 세웠다는 것은 전통시기 중국의 출판, 인쇄 시장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물론 도서 발행이 흥성해지면서 책의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빈곤층의 사람들에게겐 그것도 사치품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도서 대여점 역시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된다. 위의 2장에서 언급한 일반 서점이나 서선 등도 모두 도서 매매와 대여를 병행하기도 하였으며, 도서 대여업의 이윤이 많아짐에 따라 전문 도서 대여점이 서점으로부터 독립되기도 하였다. 道光 연 간에는 江浙 일대에 별들처럼 늘어서 있을 정도에 이

26) 박소현, 앞의 논문, 126~128쪽 참조.

르렀으며, 그 외에 上海, 廣州 등지의 시정 골목마다 무수한 대여점과 노점들이 생겨나 매우 흥성하였다.²⁷⁾

이렇게 다양한 지역적 분포는 전통시기 한국의 세책이 17세기 서울이라는 시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매우 다르다. “서울 외에 송도, 대구, 평양 같은 큰 도읍에 세책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서적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책가의 장서가 단박에 줄어들었다”는 모리스 꾸랑의 언급을 고려해보면, 세책이 그다지 크게 유통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또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의 서울은 ‘새로운 읽을거리에 대한 욕망’이 역사상 최초로 하나의 커다란 유행을 형성한, 특이한 시공간으로 여겨진다”²⁸⁾ 는 정길수의 언급은 세책이 정말 독특하고 일시적인 조선의 문화현상이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오로지 절강성의 책방과 대여점이 소장한 음서들을 아직도 거둬들이지 못했다.(惟浙省書鋪及稅書鋪所藏淫書板片書本, 尙未收繳)”, “특히 책방과 대여점이 기서들을 숨겼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特恐書鋪及稅書鋪藏匿居奇, 不即繳出領價)”²⁹⁾ 등등 서점과 도서대여점은 흔히 같이 병칭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전통시기 중국에서 도서대여는 책방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보는 것처럼 매우 흔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도서대여가 특별히 독특한 하나의 문화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조선시대의 세책은 돈 몇 냥, 혹은 여인들의 신변패물(비녀나 팔찌)이나 살림붙이(화로나 솥, 냄비), 신변잡화, 의·식·주생활 용품류 등의 물건을 저당 잡히고 빌렸던 아주 열악한 유통구조³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는 돈을 주고’³¹⁾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

27) 孫文杰, <清代圖書流通傳播渠道論略>, 《圖書與情報》, 2012年 第6期, 2쪽.

28)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51쪽.

29) 《勸毀淫書徵信錄》(石昌淪,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 第39卷, 2010, 71~72쪽에서 재인용.)

30) 정명기, 앞의 논문, 93~95쪽 참조.

상으로까지 여겨졌다. 그에 반해 대여료보다 많은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돈을 지불하고 책을 빌려 보았던 중국의 세서 고객들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도서 유통 시장의 장점을 향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맺는 말

전통시기 한국의 도서를 대여하는 세책은 현대인에게 참신하고 흥미진진한 소재를 제공해 줄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 당시 많은 도회지 가운데에서도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만 성행했었다는 점, 세책의 단골 고객이 집에서 조신하게 집안을 다스려야 하는 여성 계층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를 들고 나와 저당 잡혀 가면서까지 몰입했고, 심지어 그것이 부덕을 계도하는 것이 아닌 불순한 내용을 담은 소설 나부랭이었다는 점, 그래서 집권계층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 등은 아주 많은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세책이라는 것에 집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렇듯 흥미로운 소설 대여 방식이 중국에서도 ‘세서’라는 이름으로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했고, 따라서 중국에는 세서에 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여기는 학계의 오해가 부당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선 세책과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세서의 존재들은 이제껏 충분히 밝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세서는 전문적인 대여점인 세서포 외에 판매를 주로 하는 서점이나 책을 싣고 이동하던 書船, 貨郎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설의 독자층을 비교해 본 결과 세책 역시 양반층 여성 외에도 관료, 군인, 상인, 천민 등 매우 다양한 계층이 있었고, 그 점은 중국의 세서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여성 독자층만을 비교해

31) 李德懋, 金鍾權 譯, 《土小節: 韓國의 傳統禮節》, 서울: 명문당, 1993.

보았을 때에도 그 특성이나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아주 특수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결론적으로 세책과 세서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그토록 다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양국의 출판과 인쇄 상황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시기 한국에서의 출판 상황은 비슷한 시기 중국의 출판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인쇄 수량과 지역을 막론하고 소설의 출판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중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기 한국의 세책에 대한 의존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하나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비춰졌다. 결국 전통시기 한국의 소설 유통 및 독서 현상 연구에서 세책 현상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 인쇄와 출판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소설이 대중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중국의 경우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과 대여하는 것의 구별이 필요 없을 만큼 출판 인쇄가 성행하였기에 도서대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유통구조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대여 현상이 굳이 소설 유통에 있어서 독특한 사회현상을 형성할 만큼의 특별한 역할과 의의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소설 대여 역시 세책 못지않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인정해야 한다. 단지 조선의 세책이 ‘서울’이라는 매우 특징적이고 제한적인 공간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봐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ssociation for Research on Ancient Korean Novel, *Writing and Propagation of Ancient Korean Novel*, Seoul: Asia munhuasa, 1994.

- Cho, Dong-II, *Korea Literature Syntax III*, Seoul: Knowledge Industry, 2005.
- Cho, Dong-II, *Theory of Comparative Social history of novel II*, Seoul: Knowledge Industry, 2002.
- Cho, Hae-Ran, "The Study on the Reading Experiences of Women in Chosun Dynasty", *The Korean Cultural Studies*, Vol.8, 2005.
- Cho, Yoon-Je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eoul: Tamgudang, 1981.
- Choi, Soo-Kyung, "The Study on Popular Novel Press and the Novel Reader in the First Half of the Ninth Century in China", *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Novels*, Vol.37, 2012.
- Chung Kil-Soo, "The Emerging path and the method of full length novelization of the 17th century Korean novels", doctoral dissertation of Seoul University, 2005,
- Chung, Myung-Kee, "Distribution aspect of Korean Classical Novels for Lending", *The Research of Old Korean Novel*, Vol.16, 2003.
- Courant, Maurice, translated by Kim, Soo-kyung, *Bibliographie Core'enne*, Seoul: Bumwoosa, 1995.
- Guo, Meng-Liang, "Shuchuan Lüeshuo: Ming Qing Jiangnan Tushu Maoyi de Gean Fenxi"(Book ship: Case Analysis Jiangnan book trade), *China Publishing*, Vol.5, 2009.
- Hong, Sang-Hun,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Book-market in Jiangnan Area of Traditional China: On the Case of the Production and Trade of xiaoshuo works",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Vol. 41, 2004.
- Huanglin · Han, Tong-Wen compile, *Zhongguo Lidai Xiaoshuo Xuanzhu* (中國歷代小說論著選: *Articles and Writings Selection in the Ancient Chinese History*), Nanchang: Jiangxi Renmin Chubanshe, 2000.
- Jeon, Sang-Uk "Characters of Lending Library Users -A Case Study on

- the Tōyō Bunko Lending Account Books”, *The Research of Old Korean Novel*, Vol. 26, 2008.
- Jung, Byung-Sul, “Growth and Distribution in the Korean Novels of Late Chosun Dynasty: Focus on the Book lending and the Block Print Edition”, *Journal of Chintan*, Vol. 100, 2005.
- Kang, Jong-Im, “Novel Lending Services and Limitation in Traditional Era of Chin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6, 2014.
- Kim Yong-Su, *Jaques Lacan*, Seoul: Sallim, 2008.
- Lee, Duk-Mu, translated by Kim, Zong-Keun, *SaSojeal(士小節): Tradition Courtesy of Korean*, Seoul: MyungMunDang, 1993.
- Lee, Min-Hee,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book-brokers and distribution of old novels general books in a period of the 16th~19th centuries*. Seoul: Yeokrak, 2007.
- Lee, Yoonsuk · OtaniMorishige · Chung, Myungkee, *Rental Library Manuscript of Old Novels*, Seoul: HyeAn, 2003.
- Ling, Qi-Chao, *YinBingShiWenJi(飲冰室文集)*, Seoul: SeoKyungMunhuasa, 1992.
- Pan, Jian-Guo, “Ming Qing Shi de Shusi”(Bookstore during Ming Qing period) <http://www.pubhistory.com>, 2006/8/7.
- Pan, Jian-Guo, “Ming Qing Shiqi Tongsu Xiaoshuo de Duzhe yu chuanbo fangshi” (Ming and Qing period popular fiction readers and dissemination), *The Journal of Fudan University* Vol.1. 2001.
- Park, So-Hyun, “Obsessive Fiction Readers: Female Reading Audiences in Late Imperial China and Choson Korea”,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Vol. 53, 2007.
- Shi, Chang-Yu, “Qingdai Xiaoshuo Jinhui Shulüe”(Qing Dynasty destroyed ban on behalf of fiction), *The Journal of Shanghai Teachers*

College, Vol. 39, 2010.

Sun, Wen-Jie, "Qingdai Tushu Liutong Chuanbo Judao Lunlüe"(Qing Dynasty book circulation channels of communic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Vol. 6, 2012.

Wang, Li-Qi, *YuanMingQing SanDai JinHuiXiaoshuo Xiqu ShiLiao*(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YuanMingQing three generations ban ruined historical fiction and drama*),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1981.

Xie, De-Hui, translated by Park, Chul-Sang, *ShuLinQingHua*(書林清話), Seoul: Blue History, 2011.

Yun, Dae-Seok, "A Psychological Reading of Choi In-Hun's Novels", *Korean Studies*, Vol. 16, 2007.

<Abstract>

To modern people Sechaek(세책, 貫冊), book lending in traditional Korea, has features that provide fresh and interesting subject matter. That it had only been prevalent in Seoul, one of many cities at the time, the regular customers were women, who had to make up the living in houses, brought out there furnishings and made debts to participate, the contents were not that of housewives' morality but foul and therefore created anxiety of the ruling class, were enough aspects to focus on Sechaek, one of numerous historical ev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fact that this kind of book lending did exist in China in the name of 'Seseo'. And only because it has not been receiving much of attention, the academy misconceived that the data of 'Seseo' seldom exist. And this study is trying to break its misunderstandings. 'Seseo' in China,

unlike its cognition until now, in addition to Seseopo, the rental houses, existed in many forms such as 書船(Seoseon) and 貨郎(hwanang), which were book selling stalls. Furthermore, the user of Sechaek were not only in noble class but also in government officials, soldiers, merchants and lower class of people and this is the same in Chinese Seseo. Additionally, in the comparison in women only, it is very similar in many aspects except the class of readers and few special features in cultural aspects. Conclusionally, the reason for difference in propotion of studies in Sechaek and Seseo was the difference of publishing and press situations between the countries. In other words,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Korean publishing was very limited compared to that of Chinese at the time. No matter the amount and area, the publishing, circulation and consumption of books in China grew explosively and on the other hand, those in Korea were not. The dependence of Sechaek had to be high, and therefore it has been seen as a peculiar cultural phenomenon in Chosun Dynasty. However in China, it was just a natural part of circulation process because the distinction between buying the book and borrowing it was not necessary. Accordingly, we should acknowledge the fact that book lending in China did exist enough and expect follow-up studies for the explanation for the characterized and limited place called 'Seoul'.

Key Words : 한중고대소설(the ancient novel of Korea and China), 소설대여(novel lending), 세책(Sechaek :book lending), 세서(Seseo :book lending), 소설독자층(the novel-reading world), 출판(publication), 인쇄업(presswork), 도서유통(book distribution), 문화현상(cultural phenomenon)